

이덕일의 '역사의 창'



정권 부정평가의 근본 이유

한국갤럽의 10월 29일-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72%다. 대구·경북(TK)지역의 지지율이 18%로, 전국 평가보다 낮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정평가 이유는 '김건희 여사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긍정평가 요인 중에는 '외교'가 33%로 가장 높다고 한다. 이 정권의 외교정책을 요약하면 '반북, 친일·친미'일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민들에게 족박이었다는 이른바 뉴라이트 노선과 일치한다. 그러나 당시 후행보는 윤봉길 의사의 살과 정반대였다. 그가 역사관련 국제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일제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우기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상해 홍구공원에 폭탄을 던지러 가기 전 백범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 앞으로 '선서문'을 썼다. "나는 적성(赤誠·정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살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살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선서문의 날짜는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이다. '적국'의 수괴(일일)를 도륙하기로 맹서'한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 날짜는 '대한민국 13년(1931) 12월 13일'이다. 두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국 일제와 싸우다 순국했다. 뉴라이트들이 말하는 일본인 선조는 이완용·박제순·송병준 같은 매국노들이다. 당선 뒤 이들의 노선을 따르려고 마음 먹었다면 후보시절 출마선언도 이들의 묘소 앞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한간(漢奸)'이라고 부른다. '한간'에 대해서 중국의 사전은 '중국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매국적(賣國賊), 내간(內奸:내부에서 암약하는 간첩)에 해당하는데, 곧 적과 내통해 나라를 배반한 중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에 붙어서 한국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한국인을 '한간(漢奸)'이라고 불러야 정확할 것이다.

이 한간(漢奸)들이 제 세상을 만난 것이 이 정권 아닌가? 이승만 학당 학장 이영훈과 김낙년 등이 함께 쓴 '반일종족주의'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반한(反韓)·친일'이다.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민에게 족박이었다는 일본 극우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온갖 거짓 사례로

늘어놓았다. '반일종족주의' 일본어판이 발간되었을 때 일본에서는 1인당 2권씩 판매를 제한할 정도로 한국 재정령을 끄우는 일본 극우파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 김낙년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다. 대한민국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광복회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은 취임 일성으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된 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1948년 제정된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고 말하고 있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말하고 있다. '친일잔당, 이승만 독재유혹'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의 행보는 이런 헌법 전문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것이다.

대구·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것은 이런 반대한민국적 행태가 스스로 부른 것으로 180도의 궤도수정이 없다면 그 미래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치과용 임플란트에 생기는 잇몸병



유상준 조선대학교병원 치과과장

원인세균은 풍치를 일으키는 세균과 구성이 유사하다. 그런 이유에서 인지 풍치로 인해 치아를 뽑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풍치의 원인균들에 의한 염증이 발생하더라도 치아 표면보다 거친 임플란트 표면에 잘 부착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이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임플란트 식립후 칫솔질시 임플란트 주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있거나 붓고 아픈 적이 잦았다면,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을 의심해야 한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은 임플란트 식립환자의 80%에서 나타나고, 식립된 임플란트의 50%에서 나타나는 등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 치료는 크게 비수술법과 수술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수술법은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한 스케일링이 있다. 염증이 심한 경우는 큐렛과 같은 수기구를 이용한 임플란트 표면 활택술과 임플란트 부위 소파술을 시행해서 염증을 줄일 수 있다. 비수술적 방법은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돼 있는 세균이나 치석을 기계나 기구를 이용해서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비수술적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는 통증이 덜하고 시술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임플란트 표면의 나사선에 의해 기구의 접근이 어려우며, 치료후 재발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비수술법으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은 경우는 잇몸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은 목적에 따라 임플란트 표면, 잇

몸뼈 및 잇몸을 재형성하는 방법과 흡수된 잇몸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잇몸수술 동안에 특수한 타이터늄 브러쉬나 에어파우더 등을 이용해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재형성한 후, 잇몸재생이 가능한 경우에 골이식재 등을 이용해 흡수된 잇몸뼈를 재생시킬 수 있다. 때로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약한 경우에 잇몸이 식술을 통해 단단히 잇몸을 재형성함으로써, 임플란트 주위 염증을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잇몸수술을 통한 치료는 비수술법에 비해 한층 효과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비수술법에 비해 시술시간이 길고 통증이 동반되는 단점도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방법도 간단하다. 임플란트 식립후 2-3년간은 최소 6개월에 한번, 3년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받으면 된다. 정기검진시 스케일링과 교합체크를 하고, 임플란트 나사가 풀려 있는지, 교합이 높지 않은지, 칫솔질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체크돼야 한다. 또한 1-2년 단위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임플란트 주위 잇몸뼈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은 앞서 언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오염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손상된 잇몸·잇몸뼈를 재생한 후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과정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

따뜻한 한 끼 나눔, 사랑 밥상 'Red Cross' 키친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푸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무료급식소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정서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봉사원과 연결하거나 긴급 지원으로 신속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혼자 사는 분들은 사회적 단절로 인해 홀로 지내는 시간이 점차 길어져, 식사 외에도 주변인들과 소통 및 유대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외부 출입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료급식소는 단순히 한 끼 해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월 1회 쿠킹클래스, 뜨개질, 이마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면서 재난구조 책임기관이다. 광주나눔터 무료급식소는 평상시에는 결연세대와 봉사원을 연결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나아가 재난시에는 즉각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이재민 대상 긴급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황별 개방형 무료 급식 시설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비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무료급식사업은 11월부터 진행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이름 더하기' 무료급식소 모금캠페인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이 내어주는 후원금, 노란조끼 봉사원들의 배식 봉사를 통해 운영된다. 모금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에게는 광주나눔터 내 구축된 도네이션 월에 기부 기관(자)명을 새긴 명패를 부착하고 임직원 또는 개인 기부자에게 떡국, 어버이날, 삼계탕, 동지 등 기념일 데이에 배식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기관이 참여할 경우, 급식소 내 집기·비품에 기업 로고를 각인하여 지역사회 구성원간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사회 내 나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에 작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소의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무료급식소에서의 식사가 하루 식사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우리 이웃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수 있는 나눔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긴급 지원, 봉사활동, 응급처치 보급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은 지역사회 내 관심으로 가능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가겠다.

社說

광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적극 펼쳐야

광주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광주 택시와 버스가 감소함에 따라 운행 건수도 줄었고, 이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돼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최근 2024년 상반기(1-6월) 택시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택시 운행 건수가 전년 대비 5.42% 줄어들었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과 비교해 11.0%나 감소했다. 법인택시 택시 총 면허대수(3334대) 가운데 택시 차량수의 75%밖에 충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택시 4대 중 1대는 기사 부족으로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광주지역 택시기사 이직이 늘고, 택시 가동률이 떨어진 까닭은 일이 힘들테다 연료비 상승과 매출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101개 노선 999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10개 버스업체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신규 버스가 유입이 줄어들며 60세 이상 버스 운전자 비율이 2019년 34.3%에서 2023년 41.3%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을 펼치는 광주시는 택시·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며, 도시의 첫 인상을 좌우한다. 택시·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겪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 요금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대중교통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적자 보전 등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 질에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 교사 늘려 업무과중 미리 막기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 달라는 교사들의 바람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과도한 욕심일까? 과밀 학급과 과도한 업무·학부모 민원 등에 대한 괴로움을 주위에 호소해왔던 특수 교사가 2주일 전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사는 "진짜 죽어 버릴 것 같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교사들의 격무와 교권 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중 다양한 상황의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의 어려움과 업무량은 가히 살인적이다. 이와중에 광주지역 특수학교 교사 수가 사실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김나운(민주·북구6) 의원은 그제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 학교 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면서 "광주의 특수학교들은 학생 4명

마다 1명을 배치해야 하는 특수교육법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교육부에 지속적인 특수 교사 정원 확대 요청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특수학교 학생 수는 2021년 2471명, 2022년 2593명, 2023년 2752명, 2024년 2911명으로 매년 5% 내외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장애 학생 증가에 따라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도 늘고 있는 것이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명당 학생 4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 지역 특수학교는 정교사만을 놓고 보면 1명의 교사가 4.3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정원의 계약직 교사(80명)를 배치한 덕분에 교사 1명이 3.9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특수 교사를 충원해 주길 바란다.

無等鼓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을 하나 뽑으려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꼽겠다. 다비드는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작은 국토 면적과 적은 인구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다윗처럼 훨씬 큰 국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라 부

명에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자본주의 국가들도 서둘러 노조를 인정해 지금에 이르렀다. 이후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노조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노조의 천국'이라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노조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성장·발전을 막거나 지나치게 단체 행동에 나서지는 것은 고민해볼 문제다. 천신만고 끝에 노사민정이 만들어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이 아니다. 직원들은 사

전에 충분히 이를 인지했고, 다른 이들과의 경쟁을 거쳐 지역에서 꽤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

모두의 승리

라나 이 연약하지만 한 기업은 현대자동차에 100% 의존하고 있고,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그것이 상상협약서에 명기된 총생산량 35만대의 수도 있다. 노조가 자신들이 살아갈 지역과 앞으로 취업할 후배들을 위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천명한다면 좋겠다. 그것이 그 기업과 노조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고, 후일 모두의 승리로 평가될 것이다.

/유현성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洸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 열 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24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 예 향 부 220-0692 | 사 진 부 220-0693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222-0195) (FAX 02-773-9335)
경 제 부 220-0648 | 여 론 매 체 부 220-0661 | 제 2 사 회 부 220-0680 | 디 지 털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